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진통... 금명 타결 가능할까?

30개월 자율규제 실효성 줄다리기

기싸움 여전...주내 타결에 무게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살얼음판을 걸듯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7일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 건물에서 만나 세 번째 공식 담판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8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밤)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정부는 미국의 수정 제안과 협상의 구체적 진전 상황과 관련 일체 입을 다물고 있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수출·수입 업체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놓고 시각 차이가 있어 협정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춧발심'과 이번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다급함을 미국도 충분히 알

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 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초 양측은 30개월령 쇠고기 문제를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풀다'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구상을 이미 상당수준 검토해온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통해 일부 후퇴한 제안을 내놔서라도 회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양측이 '기싸움'을 통해 타결안을 각자 자신들의 제안에 가깝도록 끌어당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양측이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30개월령 문제에 대해 사실상 미

국 정부의 개입을 뜻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의 도입이 우리 협상단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다.

하지만 '노골적 정부개입 불가'라는 미국측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면 이 목표는 완전히 관철될 가능성보다는 수정된 형태로 채택될 공산이 크다.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미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스스로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문제는 이 대안이 채택될 경우 EV에 동의하지 않는 쇠고기 수출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규제 체제하에서 수출이 재개된 뒤 과거 '뺏자고 사태'처럼 조건에 맞지 않는 상품을 수출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난제다. /연합뉴스

추가협상→대국민 담화→인적 쇠신

이 대통령 쇠고기 정국 타개 수순?

20일 청 쇠신...내주 개각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쇠신이 임박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금명간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인적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현재 내각 총사퇴를 물고온 쇠고기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은 뒤 직접 대국민 설명의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부터 해결하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그나마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쇠고기 추가협상 종료→대국민 담화→청와대 쇠신→내각 쇠신 등의 순서를 밟아 나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밤으로 예정된 한미 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보고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 19일 오후 대 국민 담화를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이통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형식은 대국민담화가 아닌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에 이어 곧바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개편을 본격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우의 대통령실장을 포함, 참모진 대쪽 교체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미 2기 참모진의 진용을 어느 정도 갖춰 놓았다는 후문이다. 인사발표 시점은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국회 상황을 봐가며 인사를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한국시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의 USTR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쇠고기 파문' 사과·불가항력적 경제위기 설명

오늘 대국민 담화 될 뎀나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발표할 대국민 담화의 골간은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국가적 위기상황이 대내외적인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체제 논란으로 촉발됐던 만큼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중인 한미 장관급 쇠고기협상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은 내일 담화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의 성격은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근 한달만에 이뤄지는 두번째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단계 높은 수준의 유감표명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초 겪고 있는 고충을 솔직히 어조로 토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지방건설 경기 불황, 잇단 파업사태 등 대내외의 '불가항력적' 경제환경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청·내각 인선 2배수 압축

류 실장 포함 청 수석 대쪽 교체... 내각은 '중폭'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20일께 류우의 대통령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들을 대쪽 교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와 해명,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을 피력할 것이라고 청와대 이통관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는 류우의 실장을 포함해 대쪽 개편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지금 후속 인선작업이 진행중이고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검증이 끝나는대로 가능하다면 이번주내에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들의 경우 조기 개각을 할 경우 국정 공백이 초래되는 데다 18대 국회 개원의 지연과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감안,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개각은 국회 개원 시기 등에 따라 뒤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 폭에 대해 "최종적으로 몇 명이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비서관들도 일부 보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실장에는 윤진식 전 산자부장

관, 윤여준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에는 행정부 전 의원,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민정수석은 정중복 전 의원과 수원 검사장을 지낸 이동기 변호사,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법령정비팀장을 지낸 정선태씨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종찬 현 수석의 유임설도 없지 않다.

외교안보수석은 현인택 고려대 교수 유력하며, 경제수석은 김석중 전등수 전 재경부 차관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도 거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강정재 전남대 총장과 인사규 전 장관이 각기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황식 대법관, 김종민 전 검찰총장의 감사원장 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부시, 美쇠고기 日수준 개방 합의 했었다"

민주 김진표 의원 제기

청은 "금시초문" 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전인 지난해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일본 등 주변국과 협정에 맞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구두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해 봉하마을로 노 전 대통령을 방

문했던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은 18일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 쪽에서 쇠고기 문제 진전 없이는 한국과의 FTA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해, 그 얘길 듣고 나서 바로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구두합의 내용은 개방 수준을 국제수역사 무국(OIE) 기준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정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전

화통화에서 OIE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의 개방 수준과 형평을 맞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30개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은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구두합의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교육보험 가입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교육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의 80% 환급
▶시 험 :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제19회 공인중개사 10월 26일 시험대비!!

개강 7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기본서 공인중개사 프린트 시험지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현재 접수중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요망]

44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전문 **광주고시학원**

본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 원사점 ☎ 971-0002 (구백대원빌딩 옆 광주영 4F)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서문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자직, 특직, 통역직, 건축직, 보건직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열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 1일 (주·야반모임)** 합격수강 회원모집

전남: 제1회 공·경 9월27일 209명 / 경기: 제2회 636, 전북: 119명 공채 / 서울: 원편 7.20, 1.183편, 기타 8.17, 656편

6개월 (준)회원 80만원 / 1년 (정)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문제풀이특강** 교공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첫진도 시작반)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람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회원)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합격자들부터 추천된 1등학원 ●인문과 신력을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북구점 ☎ 529-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계림동 구서정사거리(중흥동)대림빌딩 옆 경찰빌딩 6층